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



NOW HRD

국가기술자격을 향한 길,
과정평가형자격

HRD 사용법

도전하는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취업지원사업

2020년 상반기

공단 사보 설문조사 실시

07

2020
JULY
vol. 289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김은희

글 김민정, 이슬기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DREAM

04—05

HRD 오피니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06—09

NOW HRD

국가기술자격을 향한 길,

과정으로 승부하라!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10—11

HRD 사용법

도전하는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취업지원사업

12—15

HRD 현장사용법

해외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JSL인재개발원

함께해 DREAM

16—17

채용의 정석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의 증가,

한국전기안전공사

18—21

상생과 협력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우리같이

22—25

기술로(路) 인생

임종철 우수숙련기술자(창호시공)

26—27

생생 꿈지도

그 언제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약속해 DREAM

28—29

신박한 자격

표면에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덧대는 자격

금속도장기능사 vs 표면처리기능사

30—31

똑똑 여행

스피드를 즐겨라!

산과 바다에서 짜릿한 여름나기

32—33

취업에 직방

면접관들이 말하는

비대면 면접의 모든 것

HRD DREAM

34—37

돌아온 팀플전

공단 총무부

울산 테마카페 의상체험

38—39

인싸 책방

요즘 애들과

요즘 어른들 사이

40—41

당신의 청렴지수

관계의 청렴이 중요한 시대

42—43

HRD 뉴스

44

독자후기

꽃살창호는 숭고한 창작이다

사찰의 문에 새긴 꽃살창호는 건축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기술입니다.

3D프린터로 건축물의 설계와 디자인, 창작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

손때 묻은 기술이 더디다 할지라도 사상과 철학이 담긴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진하며 고유기술 전수에 힘쓰겠습니다.

동작 —— 창작



우수숙련기술자(창호시공)

임 종 철

목재창호 우수숙련기술자

주거생활에 필요한 환기, 채광, 조망, 사람과 물건의 출입을 위하여

주어진 도면에 따라 각종 목재와 수공구,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마름질, 톱질, 대패질, 끌질, 연마작업으로 문틀, 출입문, 창문 등을 제작 · 수리하는 전문가로,

매년 공고일 기준 7년 이상 해당 직종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진 속 울퉁불퉁 한 발은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강수진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됐다. 화려한 자태 뒤에 숨겨진 혹독한 연습과 노력의 흔적에 국민은 감동했다. 김연아, 박지성 발도 그렇다.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우뚝 선 그들을 우리는 국민영웅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출전을 앞둔 한 선수의 부모가 인터뷰에서 자식 손이 “30년 농사지은 손” 같다고 했다. 몇 년 동안 한 우물을 판 어린 숙련기술인의 손 또한, 강수진의 발처럼 고된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회 존폐가 아니라
기능경기대회의 취지를 살려
학생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기술역량의 증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매년 열리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규모는 2010년 9,878명, 2015년 8,271명, 2019년 6,741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비 숙련기술인들이 기술과 기능의 역량을 뽐낼 꿈의 무대가 좁아지고 숙련기술의 단절 현상이 가속화 될까 우려스럽다. 더욱이, 얼마 전 대회를 준비하던 특성화고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학생 건강과 학습권 침해를 들어 대회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1966년 시작돼 55년 전통을 이어온 기능경기대회로 그간 7만 8,000여 명의 우수 숙련기술인이 배출됐다. 이들은 산업화시대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른 현재 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기여했다. 이들은 든든한 베풀목이자, 국가적 자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대회 존폐가 아니라 기능경기대회의 취지를 살려 학생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기술역량의 증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나이가 순위에 매몰된 ‘일등주의’를 버리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일류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능경기대회는 모든 선수에게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쏟아내는 숙련기술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 또 대한민국 숙련기술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발굴의 터가 돼야 한다.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5,500여 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 차례의 연기가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으로 무탈하게 막을 내렸다.

오는 9월, 전라북도에서 8일간 제 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미래를 여는 천년 전북, 기술을 꽂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방대회의 관문을 통과한 전국 17개 시도 1,900여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숙련기술인의 열정을 펼칠 무대는 계속되고 있다. 이 꿈의 무대에 뛰어든 예비 숙련기술인에게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만

국가기술자격을 향한 길, 과정으로 승부하라!

과정평가형자격 100% 전원 합격의 쾌거,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자격증 수여식 현장



QR코드를 인식해
자격증 수여식
현장을 만나보세요!

지난 6월 15일,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에서
제1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자격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환한 미소로 내외부 고객을 반기는 선생님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장한 총 76명의 예비 마이스터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자격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사제 간 서로를 향한 격려와 뜨거운 갈채로 가득 찬 수여식 현장을 전한다.

과정 평가형 자격





과정과 결과 모두 빛난 열린 소통의 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제1회

과정평가형 자격 정기시험에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2학년생

총 76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이들은 지난해 고교 1학년 시절, 생산자동화산업기사에 36명, 전자산업기사에 40명이 도전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수여식은 이처럼 고교 1학년 최초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것을 격려하고, 공단과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장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광주자동화설비공고 안규완 교장을 비롯한 과정평가형자격 지도교사들과 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대수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여식은 공단 전문자격시험부 박신철 차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규완 교장과 김대수 본부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안규완 교장은 “그간의 사제지간의 노력을 다독이며, 향후 이러한 성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자”라고 전했으며, 김대수 본부장은 “오늘은 노력 끝에 성과를 이룬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라며,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및 전자산업기사 대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수여했다. 뒤이어 합격자 대표인 유정훈 학생 및 즉석에서 무대 위에 오른 학생들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소감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들은 공통으로 선생님들의 열렬한 지도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해온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및 전자산업기사 종목별 단체사진 촬영으로 수여식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광주지역본부에서 준비한 치킨과 피자로 든든함까지 더해져 더욱 알찬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광주자동화설비공고는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 조립도면 작성, PLC제어 프로그램 개발, 모터 제어, 공기압 제어, 센서 활용 기술 등 12개 실무능력단위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해 왔다.

또한, <전자산업기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기초회로설계, 제품회로설계, 타겟보드 제작, 정보통신기기 PCB 보드 개발, 정보통신기기 회로설계 등 11개 실무능력단위 교육과정을 편성해 과정별로 615시간을 운영해 왔다.

정규 교과 시간을 제외한 방과 후 활동만으로 자격 취득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단 한 명의 결시생 없이 모두 시험에 임했으며, 공정한 내·외부평가를 거쳐 76명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내부 평가(50%)와 외부평가(50%) 결과를 합해 평균 80점이 넘는 자에게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 **한마음 한뜻, 과정으로 증명한 실력!**
-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4인 인터뷰

성 춘 기 선생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지도교사

Q 선생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격 능력단위 중에 조립 도면작성과 도면해독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2D에서 3D까지 아우르면서 최종적으로 ‘조립 도면을 보면서 부품을 뽑아내는 과정’이었는데, 학생들이 고된 일정에도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약 1여 년의 긴 시간입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방학에도 꾸준히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때마다 학생들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썼죠. 햄버거, 누드김밥, 채소김밥… 아이들 입맛에 맞는 먹거리로 쟁기다 보니 색다른 음식을 자주 먹어봤네요.(웃음)

Q 오늘 수여식이 어떤 순간으로 기억됐으면 하시나요?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노력해서 결과를 얻은 것, 공단에서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수여식까지 진행한 것이 아이들 인생에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춘기
선생님



민채연
학생

민 채 연 학생

‘전자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Q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어떤 것을 얻었나요?

선생님들이 “너희 100%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과를 보면서 뿌듯했고, 선생님들께 감사했어요.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성공 경험으로, 성인이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이 과정을 떠올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유정훈 학생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Q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산업기사 자격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고등학생인 저희가 자격에 도전한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615시간 동안 자격 수업을 받고 실습을 하다 보니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기 동작을 만들고 결과를 예측하고 수행하면서 수리적 능력도 얻고, 도면을 작성하면서 공간 지각력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의 분야는 ‘공장 자동화 분야’입니다.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가서도 어떤 동작이든 설비든 스스로 조작하고 운영하며 유지 보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정훈 학생



과정 평가형 자격

곽도영 학생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Q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에 대해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100% 합격률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과정평가형 자격이 검정형 자격과 다르게 다양한 수업을 배우면서 ‘과정’에서 한 뼘 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후배들도 100% 합격률 이루어져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과정을 놓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겨낸다면 달콤한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곽도영 학생



도전하는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취업지원사업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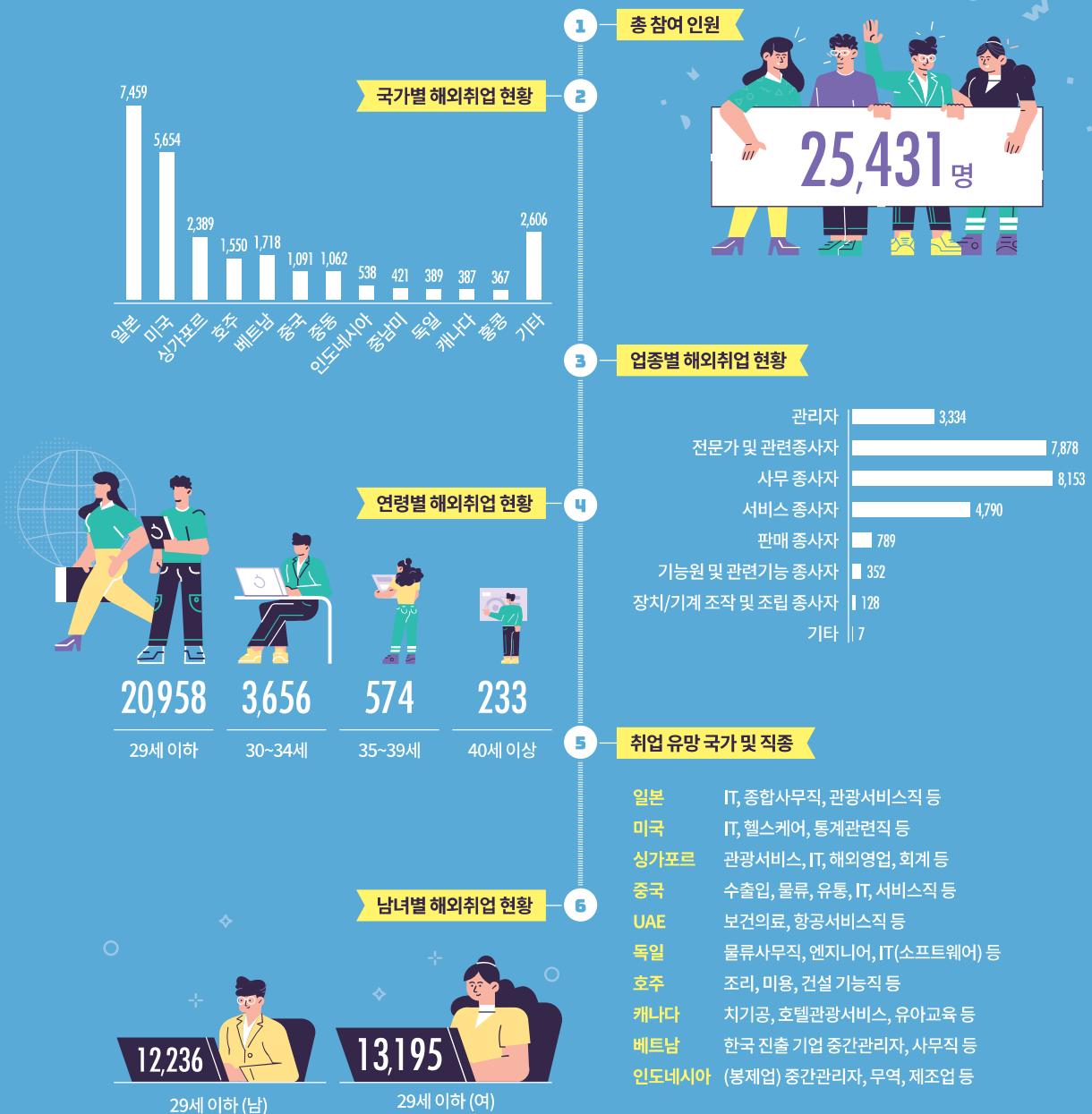
공단은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연수 실시, 해외취업 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공, 해외취업센터 운영 등 해외취업을 위한 정보제공-교육-알선-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운영한다.

-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해외취업알선** 대한민국 인재채용을 희망하는 해외업체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연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금
- **해외취업지원센터** 해외취업 상담, 해외취업전략설명회, 해외취업아카데미 등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 절차

구분	단위사업	청년의 눈높이에 따른 서비스 내용
해외취업상담· 정보제공	해외취업 설명회	해외취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요 :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채용 정보, 비자정보, 고용·노동시장 동향 등
	국가별 취업박람회	직접 부딪혀서 알아보고 싶어요 : 구인기업, 리크루팅사, 취업선배, 교육기관, 지원 기관의 상담과 체험서비스 제공 종합행사
	1:1 해외취업 상담	국가별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어요 :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방상담, 전화·이메일 상담 등
	국가별 가이드북 (완전정복 시리즈)	관심국가 정보를 한번에 보고싶어요 : 해외취업 유망국가의 각종 정보를 한 권으로 엮은 종합 가이드북 제작·보급(책자, E-Book)
	해외진출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운영	해외취업 정보 어디에 있나요? : 구인정보, 교육과정 정보, 국가 정보(유망직종, 비자, 생활, 취업여건 등), 온라인 상담 플랫폼
구직자 역량강화	해외취업연수 K-Move(스쿨)	직무능력·외국어가 아직 부족해요 :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어학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청해진 대학	저학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어요 : 저학년부터 예비자 과정을 도입하여 해외 취업 관심을 유도하고, 이후 K-Move스쿨 본과정 진행
	해외취업아카데미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어요 : 외국어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모의 외국어 면접 및 글로벌 네트워킹 스킬 강의
일자리 알선	공공 해외취업알선	믿을 만한 공공 알선을 이용하고 싶어요 :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된 해외구인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취업
	민간 해외취업알선	민간 전문기관 알선을 이용하고 싶어요 : 글로벌리크루트사 등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현지 적응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취업초기 정착이 힘들어요 : 취업초기 현지정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지원금 지급
	해외 현지 애로상담 (코트라 협업)	현지적응 정보가 필요해요 : 취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정보 교류와 현지 모임, 행사 등을 통한 친교활동 지원 → 안정적 현지 적응

한눈에 보는 해외취업지원사업(2015~2019)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해외통합정보사이트다. 주요 국가 해외취업 전략, 국가별 기본 정보, 유망직종 등 정보, 선배들의 해외취업 성공 수기, 전세계 채용공고를 통해 준비부터 취업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취업, 이곳에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해외취업지원사업



JSL인재개발원



(왼쪽부터)강정수 부원장, 최강민 연수생, 최문환 연수생, 유정호 팀장

해외취업은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다. 실무부터 언어, 현지 문화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교육부터 취업 까지 완성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는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 그 사업의 예를 JSL인재개발원에서 찾았다.

막막했던 해외취업의 모든 것

대전에 자리 잡은 인재개발원은 일본 IT취업교육에 특화된 인재양성 교육기관이다. 2010년, 수강생 30명으로 일본 IT취업교육 과정을 시작했고, 올해로 11년 째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JSL인재개발원은 연간 3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다. 처음에는 일본이 주요 대상 국가였으나 지금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를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의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JSL인재개발원의 설립 배경은 일본에서 늘

고 있는 한국 IT인재수요와 국내 구직자들의 해외취업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이 그 이유였다. 일본 현지업체 조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IT인재 채용을 희망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일본 업체와 해외취업을 원하지만 믿을 만한 취업처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 간 잡 매칭과 실무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이다. 이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으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해 다른 지역 대학들과도 협력하여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 IT취업교육 과정은 IT직무, 어학 및 취업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T직무교육은 일본 IT업계의 소프트웨어 구동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자바, 데이터베이스, JSP 등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고 어학교육은 문법, 회화, 작문, 실전 비즈니스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에 반영해

‘일본어’로 채용 면접 및 커뮤니케이션에 응할 수 있는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교육은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SL인재개발원 강정수 부원장의 설명이다.

언어부터 실무까지 최적화된 교육

JSL인재개발원의 특화된 장점은 일본 현지에서 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최초로 K-Move 과정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을 융복합하여 하이브리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취업에 필요한 IT직무교육 및 어학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도입 배경인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를 배출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일본 기업체에서도 선호하는 자격증으로, 실제 취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효과도 큽니다. 실제 일반연수 과정과 비교하여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이 최대 50% 이상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취업지원팀의 유정호 팀장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하다. 교육과정에서 JSL인재개발원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연수생들이 취업했을 때, 현지 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직무 교육을 할 때, 연계된 일본 IT기업과의 정보 공유로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또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개발 교육을 편성해 개인 프로젝트 3회, 팀 프로젝트 1회, 총 4회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연수생 개개인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있어요. 또한 바로 기업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정수 부원장과 유정호 팀장이 함께 입을 모은다. JSL인재개발원이 거둔 성과는 놀랍다. 2010년 개원 이후,

약 1,000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취업 매칭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평균 8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해 오고 있다.

연수생을 고용한 일본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기는 매한가지다. 다수의 기업들이 연수생을 채용한 후에도 추가 채용을 원하고 있으며 연차가 늘어나면서 연수생 출신이 채용 담당이 되어 만나는 경우도 있다니 매우 놀랍다.

“JSL인재개발원은 일본 IT취업 연수교육을 운영하며 쌓아온 교육 및 취업 지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일본 호텔서비스 취업과정, 영미권국가 취업역량강화 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하나의 경제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이때, 이처럼 JSL 인재개발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력체제 하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국내외 양질의 기업체와 연결하기 위한 최적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MINI INTERVIEW •

최/감/민 연수생



저는 작년 8월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냈고 일본 취업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알아보다가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IT 수업은 자바 기초부터 시작했고 일본어 회화, 비즈니스 일본어 등을 병행하고 있어요. IT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육이 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초원리부터 시작해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수업시간 외에도 보충수업이 있어서 한두 달 지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JSI인재개발원의 꼼꼼한 교육과정 덕분에 무사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업의 질이 훌륭하고 매니저님도 친절하셔서 큰 위안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현재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시기 때문에 가족 같은 정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문/환 연수생



저는 지난 12월부터 JSI인재개발원 40기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일본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했고 올 2월에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SI인재개발원에 저보다 먼저 다니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곳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받았어요. 수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IT 공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보니 일본어 회화는 물론 읽고 쓸 수 있는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력서 첨삭을 도움 받을 수도 있고 해외취업 관련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달에 일본기업과의 화상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현지 일본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숙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①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의 증가, 한국전기안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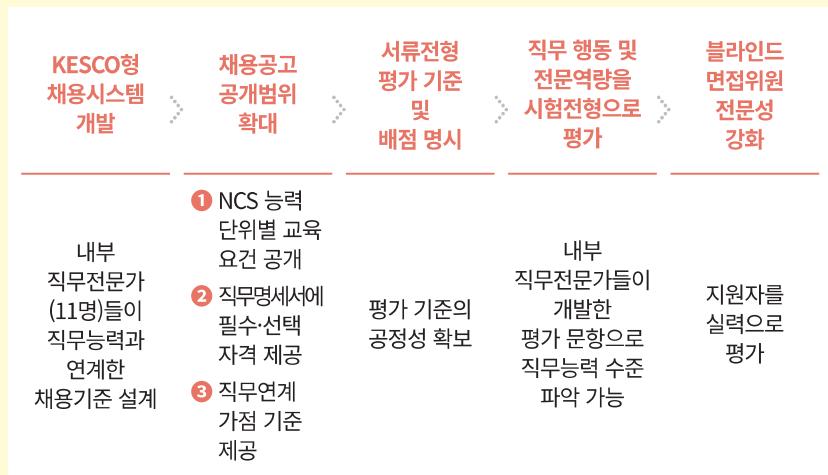
특화된 블라인드 채용과정

도입 배경

- 고스펙 보유자 이직 및 중도 퇴사를 높음 → 인력 운영에 어려움
- 지원자에 대한 편견 → 채용 평가과정에서 여전히 존재
- 차별적 요인을 배제 →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의 필요성 높아짐



추진 내용 및 과정



성과 및 성공 요인 (2015년 기준)

■ 실력과 공정함을 더한 N블라인드* 채용의 성과

- * 직무능력을 파악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블라인드 채용의 합성어
- 허수 지원 감소
 - : 경쟁률은 53.1:1에서 18.3:1로 낮아지고 응시율은 78.1%에서 85.5%로 높아짐.
- 중도퇴사 감소
 - : 중도퇴직비율이 17.6%에서 13.9%로 감소
- NCS 채용직원 만족도 증가
 - : 채용프로세스 만족도 91% 이상 만족
 - : 입사지원서가 직무능력을 나타내기에 적절했다는 의견 84.2%
- 기술직 여성채용 증가
 - : 전체 채용인원 중 3.37%로 증가
 - (구조적 한계와 현장업무 특성 등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 기술직 여성 지원자 중 최종채용 비율은 1.7%였음.)

향후 발전 방안

서류전형 검증강화	시험전형 내실화	면접전형 고도화
채용비리 ZERO를 위한 채용관리체계 고도화	직무능력 평가가 가능한 직무전문가(11명)들이 출제	심층면접 기법 도입을 위한 TFT 운영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변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여성 채용 인원 증가!**

**블라인드 채용,
진보하고 선진화된 채용방식!**



최혜인 대리(5급)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사혁신부



전대현 주임(6급)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사혁신부

Q ——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A —— 그동안 전기안전이라는 분야 및 업무 특성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저조했는데,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후 여성 채용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하면서 허수 지원자가 크게 줄고 중도 퇴사비율도 낮아졌습니다. N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채용의 문에 가까워졌다는 후기를 들을 때마다 채용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Q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대해 평가한다면?

A —— 과거에는 개인의 직무 능력보다 학벌, 외모, 친인척 관계 등 실제 업무와는 다른 요소가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전형에서 필수사항(이름, 연락처) 외에 불필요한 이력사항을 배제해 차별적인 요소를 없앤 공정한 채용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무 능력 검증 외의 채용 단계를 최소화하여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원해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Q&A

Q —— 자기소개서에 일했던 기업이나 부서명, 또는 전공을 기재해도 되나요?

A —— 기업명, 부서명, 전공은 블라인드 위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학교명이 표출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하는 가치를 발견하다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우리같이

(주)우리같이는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홍보·기념 판촉물 제작, 행사기획 및 대행 전문기업으로, 2019년 울산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후 울산지역 청년 인재 발굴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들.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목표로 차근차근 성장궤도를 밟고 있는 (주)우리같이를 찾았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주)우리같이의 한주석 대표가 사회적기업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2014년 판촉물을 주력으로 기업을 운영하던 당시, 한 대표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 사무실의 물건에 자주 부딪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직원의 한쪽 눈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서 다녔던 기업들이 눈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마다 권고사직을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한 대표는 그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불안에 대



해 깨닫게 되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제도에 대해 꼼꼼히 공부한 뒤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 그렇게 (주)우리같이는 2015년에 예비 사회적기업, 2019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들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일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영상 분야로 재능이 있는 인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영상 분야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이죠. 일반 기업과는 다른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앞테이블 왼쪽부터)안시현, 한주석 대표, 김예은
(뒷테이블 왼쪽부터)기지현, 윤초원, 김민정, 장이두, 안도영, 박희정

- | | |
|-----|----------------------|
| 2 1 | 1—울산중구청 더루프탑 행사 기획 |
| 2 3 | 2—(주)유인 키달로그 |
| 4 | 3—울산박물관 가로등 배너 |
| | 4—울산박물관 초청장 |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주)우리같이는 홍보·기념 판촉용품 기업에서 출발해 디자인과 영상, 행사기획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고속성장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울산 중구청과 함께 기획한 행사, ‘더 루프 탑’이 관심을 받으면서 행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밤에 행사를 진행하는 차별성을 둔 한편 행사 목적에 딱 맞는 홍보물 제작을 통해 하루에 1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온 것. 그 결과, 옥상이라는 유휴 시설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직원들의 가치를 올리는 곳

(주)우리같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고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혼자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도록 돋는 것이 한 대표가 추구하는 직원 교육이다. 그래서 이곳 직원들은 모두 고객과 1대 1로 소통하며 견적을 내는 과정부터 실무까지 폭넓은 업무를 진행한다.

“우리는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아이템을 콘텐츠로 만들고, 또 그것을 사업화합니다. 직원들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편,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주)우리같이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무조건 보기 좋고 예쁘기만 한 디자인과 영상보다는 메시지가 담긴 결과물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메시지를 결과에 담아내는 것이 이곳의 강점이다.

“디자인만 하는 것은 다른 기업과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가 표현되도록 디자인을 하라고 말하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미지화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자신의 최고 가치를 발견하는 무대가 되어주고자 하는 (주)우리같이. 메시지가 담긴 진정성 있는 행사 혹은 홍보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면 이곳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구성원들의 성장을 바라는 (주)우리같이라면 더 의미 있는 디자인과 영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MINI INTERVIEW****(주)우리같이
3인과의 Q&A 인터뷰****(주)우리같이에서 어떤 일을 하
고 있나요?**

장이두 —— 안녕하세요. (주)우리같이에서 인쇄디자인과 광고디자인 등 디자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장이두라고 합니다.

김예은 —— 저는 (주)우리같이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기업의 개소식이나 준공식 등 다양한 행사를 대행하는 일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시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안시현입니다.

**(주)우리같이는 직원들에게 어떤
회사인가요?**

장이두 —— 다른 곳에 비해 수평적인 사내분위기가 돋보이는 곳이



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업무효율도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김예은 —— 개개인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직원이 고객과 1대 1로 소통하면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시현 —— 디자인 회사는 야근이 많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곳, 특히 정시퇴근을 할 수 있는 워라밸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도 디자인을 잘하는 곳이라고 익히 들어왔을 만큼 실력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장이두 —— 제가 작업한 디자인을 밖에서 만났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더 많은데 (주)우리같이와 즐겁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김예은 —— 현재 울산중구청과 함께 울산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의 향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향기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감각인 만큼 관광 상품으로 울산의 향기를 담는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하는 것들이 나중에 상품화가 됐을 때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 기대됩니다.



QR코드를 인식해
상생협력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안시현 —— 울산 남구 홍보영상
을 만들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
아요. 수정사항이 많아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작업이었는데, 완성한 후
TV와 광고매체에 송출되는 것을 보
고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우리같이와 함께 이루고 싶 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장이두 —— 지금은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일들을 주로 기획·제작
하지만, 언젠가는 (주)우리같이
의 색깔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또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Design for us'인데, 회사의 슬로
건처럼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김예은 —— 아직은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빨리 성장해서 고객들
과 1대 1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획자
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사람
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행사
를 기획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
표입니다.

안시현 —— 직원 개개인이 성장
해서 사업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주)우리같
이의 목표입니다. 저 또한 이곳에
서 영상·사진분야의 전문가가 되
고 싶습니다. 꾸준히 경험을 쌓은
뒤에는 언젠가 저만의 영역을 구
축하고 싶습니다.

상생협력관에 참여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상생협력관 사용이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가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생협력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 제품 등록 (정보인프라 공유)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확산)	기업 혁신성장 지원
<p>기업이 직접 제품을 등록</p>	<p>공단 보유 홍보 채널에 홍보</p>	<p>제품문의 및 투자처 확보 등 혁신기업 경영과 확대 지원</p>

상생협력관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단 정보 플랫폼 공유/개방

- 기업관계자가 직접 해당기업 정보를 등록 관리
- 빠르고 정확한 신제품 기업정보 반영 가능

홍보 효과↑

기술로 인생

技術路

재주
기
재주
술
길
로

- 1970 전통창호 기술 입문
1977 대건목공 설립
1998 제23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2007 꽃살창호 기능전승자 07-02호

- 2008 전국기능경기대회(제43회~ 현재)
실내장식 분야 심사위원,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최우수상 수상
2019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창호시공)

2019

2008

2007

1998

1977

1970



천상의 세계를 향한 경외, 꽃살창호

**임종철 대건목공 대표
우수숙련기술자
(창호시공)**

천상의 세계를 향한 동경은
그의 나이 서른다섯의 일이었다.
목공 일만 수십 년이 넘도록 해온 그였지만,
'꽃살창호'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으로의 입문이었다.
부안 내소사 꽃살창호를 보고서
경외감에 사로잡힌 그는
그길로 꽃살창호 43년의
외길 인생을 걸었다고 했다.
하나, 또 하나 계속해서 정진하고 보태어
수백 가지의 꽃문양을 탄생시킨 그는
전통건축의 창호쟁이 중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꽃살창호를 말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손기술로 부단히 노력해온 삶

창호의 문살은 '문양'을 새김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문살의 형태에 따라 띠살, 용(用)자살, 아(亞)자살, 만(丸)자살, 빗꽃살, 솟을꽃살 등으로 나뉜다. 사찰의 주 전각인 대웅전, 극락보전, 천수전 등 신앙의 대상을 모시는 전각에 새긴 꽃살창호는 천상 세계의 꽃을 표현한다. 광주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임종철 우수숙련기술자의 공방에는 이러한 '꽃살창호'로 재탄생하기를 기다리는 나무와 주인의 순때가 묻은 각종 도구가 빼곡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16세 때 친구의 소개로 처음 목공 일을 시작했다. 당시 열여섯 어린 나이였지만,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에 전남 화순에서 선배들을 따라 이곳 광주로 터를 옮겼고, 전통창호와 개량창호를 위주로 기술을 익히고, 틈틈이 광주로 '유학'온 수많은 학생의 자취방에서 필요한 책상, 책꽂이, 서랍장 등을 만들면서 각종 가구 제작 기술을 익혔다.

그때만 해도 가구는 전부 사람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었던지라, 성실히 기술을 익히면 월급도 곧잘 오르곤 했다. 그러다 옆 공방에서 '뒤주(나무로 만든 곡식을 담는 켜)' 만드는 일을 한다는 소식에, 그 길로 밤이면 그 공방을 찾아갔다.

"그때는 공방이 지천으로 있었어요. 내가 일하는 공방보다 조금 떨어진 데서 뒤주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그 공방에 가서 뒤주 만드는 걸 배우면서 그 순서를 수첩에 일일이 다 적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다 하루는 우리 공방 사장님의 '종철아, 우리 공방에 뒤주 만드는 일이 열 개는 들어왔다. 네가 한번 해볼래?' 물어보더시라고요. '저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한 두세 개를 재빠르게 짰지요." '뒤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술자 사이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말과 통했다. 구조물의 크기가 달라도 그 '짜임'이 같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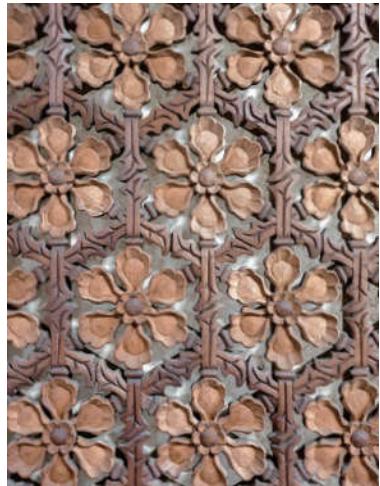
에 꽤 기술력이 필요한 ‘뒤주’ 만들기에 성공한 후로는 전과 세 배의 월급을 받았다.

“기술을 처음부터 잘한다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한 해 겨울 내내 밭에 얼음이 들어 고생하면서도 무작정 야간작업을 했지요. 대패질부터 시작해서 끝질이며, 톱질, 멕놓기,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익히고 나니 경력 3년 된 사람이 내 아래에서 기술을 배울 정도였으니까요.”

이후 1977년, 그는 스물다섯의 나이에 대건목공을 설립했다. 열여섯에 시작한 일을 멈추지 않고 해왔으니 기술력에는 자신 있고, 신임만 쌓으면 될 것이었다. 결혼 후, 온 가족이 함께 살 주택을 짓는데도 공방과 살림 공간을 이어서 구상할 정도로 심취했으니, 믿고 맡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었으랴.

공양으로 빛은 꽃살창호, 천상세계로 향하다

그러다 어느 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이었던 이지관 스님이 정릉에 있는 서울 경국사 극락보전의 꽃살창호를 제작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그는 전국 사찰을 돌기 시작했다. 그는 그때 부안 내소사 꽃살창호를 보고서 마치 기술을 익히던 처음으로 되돌아간 듯 부끄러웠다고 회상한다. 기술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내소사의 꽃살문은 인간이 살아가는 속세가 아닌 천상의 세계였어요. 그 꽃살창호를 보면서 ‘이것이 애말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안 해보고 죽는다는 것은 문 짜는 사람이 아



니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 길로 사찰에 쓰이는 나무의 재질이며 문 짜는 기술을 밤낮으로 연구했다. 늦은 나이에 건축공학과에 입학해 건축공학 석사에 이어 문화재학 박사과정까지 수료해가며 그 기술을 구현해내고자 애를 썼다. 공방에 놓인 법륜 솟을문살, 정자 문살, 매화 정자 쌍여닫이문 등은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다.

“도면과 디자인, 전체적인 짜임 기술이 모두 다 어

부단한 노력

기술을 하루 아침에 배운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다.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

우수 숙련기술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우러져야 꽃살 창호가 됩니다. 일반창호는 모듈 [module]을 잘 이해하면 만들 수 있지만, 꽃살창호는 문화, 사상, 철학, 정신세계를 모두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지요.”

창호(窓戶)는 창과 호가 결합한 말로, 엄격히 구분하면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window, 호는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door에 해당한다. 전통창호의 경우,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담고 있다. 더욱이

사찰에서 창호는 세(世)를 떠나 극락의 세계로 통(通)하는 매개체로 본다.

“국가 간의 문은 항구와 항공, 집안의 문은 대문, 사찰의 문은 일주문이라고 해요. 그 사역에 들어가면 부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가령, 순천 선암사 승선교는 배를 타고 극락세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아미타여래의 궁궐, 즉 근정전과 같은 공간에 들어서는 또 다른 문이 있지요? 그 문에 꽃살창호를 새기는 겁니다.”

그는 꽃살창호는 숭고한 일이며, 부처에 대한 공양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쌓인 세월이 올해로 43년이 되었다. 그가 공양하는 마음으로 빛은 꽃살창호는 광주 무등산의 규봉암, 곡성 성문사, 만연사 선정암 등에 자리를 잡았다. 오랜 세월, 틀어지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인가. 무엇보다 그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작업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2007년부터 숙련기술전수자로 활동해왔어요. 제가 작업한 이 모든 것이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것인데,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지요. 여태 만들어온 작품과 기술 전수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창호박물관을 여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작업실 곳곳에서 묻어나는 꽃살창호에 대한 애정이,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이 수양자의 모습과 닮아있는 듯 했다. 그의 기술 전수에 대한 꿈이, 세월을 견디고 단단해질 작업물들이 후대에도 닳기를 간절히 바란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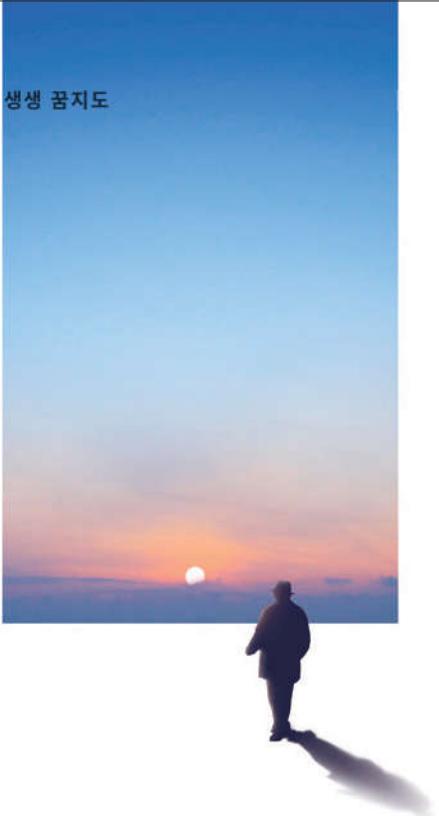
기록하는 습관

기술을 배우면 꼬박꼬박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그것만 보면 순서와 원리를 다 알 수 있다.

③

후대를 위한 마음가짐

내 기술이 후대에 길이길이 남는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운전하다 하늘을 봅니다. 검은색입니다.
남들은 쪽빛 하늘을 보고 있을 텐데
왜 저만 하늘이 검은색인지. 다시 땅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여유 있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내 하늘도 푸르디푸를 거라고
마음 한구석 희망의 끈을 잡아 봅니다.
주저앉고 싶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더라도 일어서서 걸음을 걷는 자는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음을요.

그 언제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처음으로 제 얘기를 하게 되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100세 시대에 내 인생 반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감사하면서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꼭 성공하리라

는 생각에 건설회사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시작한 자영업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영업을 뛰고 거래처도 늘어 이 정도면 잘 시작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을 겪은 후에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임대료를 내고 직원 월급에 본사 물건값을 내면 대출금 이자 갚기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어 근근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정일 사천대창1차아파트관리사무소

그런 시간이 반복될 때쯤 집안 아저씨께서 “나이 들어서 일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으나 허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십이라는 나이가 오히려 적정하다는 기사를 보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때가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시험은 7월인데 공부할 시간이 적어 인터넷 강의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3개월 만에 합격은 힘들다며 올해는 강의만 들어보고 내년에 시험을 보면 된다고 하며, 강의료도 할인을 해주어 편한 맘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니 한 번 듣고 뒤돌아보면 다 잊어버리고, 시험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아 마음만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목표가 있다는 것에 절실한 마음이 생겨 고3 아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만에 1차에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였습니다. 2차 주관식 문제는 더욱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퇴근 후 새벽 3시까지 공부하여 2차에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독촉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할 때쯤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수술과 항암치료를 반복해서 받게 되었고, 저 역시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매장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소장으로 나가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치료를 마친 후 사업장을 급매로 양도양수하고, 다시 관리소장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소방설비기사(전기) 1급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 전기기사 시험과 소방설비기사(기계) 시험 1차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전기기사는 시험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내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니 수입이 없어 진천에 있는 빵 공장에서 12시간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그릇들을 밤새도록 씻고, 퇴근 시간인 새벽이 되면 손은 통통 부어 주먹도 안 쥐어지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참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퇴근길 버스정류장에 따끈한 생강차를 보온병에 가지고 마중나온 아내를 보며 더욱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쉬는 주간에는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관리소장 모집공고를 찾아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쯤 되었을 시점, 인천에 있는 대규모단지 아파트에 관리과장으로 취업이 되었고, 지금은 청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몰랐다면 이 나이에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숨이 막혀옵니다. 이제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인생 2막이 더 빛날 수 있으리란 생각에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다음에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도전하여 나이 60세에 소방시설관리사로 일하는 꿈을 꿍니다.

저처럼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전’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돌파구로 삼아 함께 내일을 위한 오늘을 준비합시다.

표면에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덧대는 자격

금속도장기능사



구조물의 ‘도장’에 관한 자격, 금속도장기능사

도장이란, 물체의 표면에 도장 재료를 칠해 부식을 막고 색채나 광택효과를 주어 표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금속도장기능사는 산업현장에서 도장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조물의 보호와 미관 및 특수용도에 적합한 기능을 연마한 후, 도장장치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업무를 한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시험과목 필기 : ① 금속도장 재료 ② 금속도장 작업 및 안전 ③ 색채 및 조색 실기 : 금속도장 실무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5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제한 없음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필수 능력단위 210시간과 직업기초능력 30시간, 선택 능력단위 총 240시간 중 16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활용정보	도장 전문업체, 자동차, 전기기기, 공작기계, 철제가구 및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및 부품생산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의 도장부서에 취업할 수 있다. 금속제품의 종류별 도장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금속도장 전문 기능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할 전망이다.	

표면처리기능사

66

표면처리기능사는
물체의 표면을
금속으로 장식한다.

99



구조물의 ‘도금’에 관한 자격, 표면처리기능사

도금이란, 어떤 물질의 표면에 금속을 얇게 입히는 것을 말한다. 도금은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최종 공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품의 상품 가치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성능 및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면처리기능사는 이러한 도금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 사용법을 익히고, 설비의 성능, 용도, 사용법을 습득하여 제품의 표면이 부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식하는 업무를 한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시험과목 필기 : ① 금속재료일반 ② 전地道금 ③ 특수도금 실기 : 표면처리	검정방법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제한 없음
	검정방법 필기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필수 능력단위 375시간과 직업기초능력 30시간, 선택 능력 단위 총 360시간 중 95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활용정보	도금, 표면처리 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 업체 등에서 도금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인으로 인정받으며 도금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스피드를 즐겨라!

하늘을 나는 황홀한 순간

충북 단양 패러글라이딩!



단양은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 통한다. 소백산과 금수산 등 큰 산에 둘러싸여 있어 대기가 안정적인 단양은 그야말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덕분에 단양에는 10여 개의 패러글라이딩업체가 있으며, 그중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면 된다. 이륙 방법은 전문가가 그만 뛰라고 할 때까지 가볍게 발을 굴리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있을 것이다. 비행시간은 약 10분 정도. 하늘 위에서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단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노라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피부에 닿는 바람과 눈 앞에 펼쳐진 자연에 온몸을 맡기게 될 것이다.

난이도 ★★★★★

속도감 ★★★

가격 10만 원 내외

예약방법 패러글라이딩 업체 홈페이지에서
가격과 시간을 확인 후 예약

남녀노소 즐기는 재미

경남 통영 스카이라인 루지



스카이라인 루지는 중력을 이용한 놀이기구로 특수하게 제작된 카트를 타고 내리막길 트랙을 달리는 레저스포츠다. 비교적 구동방식이 수월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 즐길 수 있으며, 연인들의 데 이트나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통영 스카이라인 루지는 미륵산 정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다는 물론 주변의 섬까지 조망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드(리프트 체어)를 타고 출발지점에 올라가는 동안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여유롭게 둘러보자. 자연 속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이다.

난이도 ★★★

속도감 ★★★★☆(개인이 자유자재로 조정 가능하다.)

가격(개인기준) 루지+스카이라이드 3회(2만5천 원)

루지+스카이라이드 4회(2만9천 원)

루지+스카이라이드 5회(3만2천 원)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78 통영케이블카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맞은편

산과**바다에서****짜릿한 여름나기**

여유와 낭만이 가득한

충남 대천 스카이 라이크

대천해수욕장의 끝자락에는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가 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항까지 왕복 2.3km에 이르는 스카이바이크는 해안선을 따라 특수레일을 달리는 방식이다. 평지에서는 자력으로 힘차게 레일을 밟으며 달리고 오르막길은 전동으로 가뿐하게 통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부딪치는 파도에 아찔하다가도 먼 곳을 바라보면 어느새 바다의 풍광에 빠져 감탄하게 될 것이다. 코스는 총 40분 정도로 꽤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족 혹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쉬운 마음으로 도착점에 다다를 것이다.

난이도 ★★

속도감 ★★(바다 위를 달린다는 점에서 조금은 긴장할 것!)

가격(일반기준) 2인 승차(2만2천 원)

3인 승차(2만6천 원)

4인 승차(3만 원)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0길 79

넘치는 스릴에 자연경관은 덤

경남 하동 짐라이

하동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짐라이(Zipline)이 있다. 해발 849m의 금오산 정상에서 짜릿하게 활강하는 이곳 짐라이은 아시아 최장 길이 3.186km를 최대 시속 120km로 이동한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공중에서 짐라이를 타고 내려온다 보면 금오산 일대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짐라이은 총 3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각도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처음에는 무섭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곧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에 스며들 것이다.

난이도 ★★★★

속도감 ★★★★★

가격 성인(평일 4만 원, 주말 및 공휴일 4만5천 원)

청소년(평일 3만5천 원, 주말 및 공휴일 4만 원)

어린이(평일 3만 원, 주말 및 공휴일 3만5천 원)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93-37
(하동청소년수련원 앞)



이젠 채용도 언택트 시대

면접관들이
말하는
비대면 면접의
모든 것

올해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채용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언택트(Untact) 면접은 늘어나는데 정작 취업준비생들은 처음 경험하는 채용절차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늘어나는 비대면 면접에 대한 궁금증을 타파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비대면 특성상 보이는 화면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웨캠으로 촬영 시 배경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이 좋다. 지원자의 표정과 말투에 면접관이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배경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최선.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이야기하는 동안 면접관의 눈이 다른 곳에 쏠리는 것은 지원자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이다. 또 집에서 비대면 면접을 보는 경우 생활소음이 영상에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면접을 진행하기 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에 미리 안내를 해두는 것이 좋다. 방으로 이뤄진 스터디카페를 빌려 면접을 보는 것도 추천한다. 방해요소가 없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실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면접 시

면접관의 관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화면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지원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보다는 성과에 대한 명확한 수치적, 계량적 증명 등을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에 관한 콘텐츠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분위기를 뛰우는 아이스 브레이크용 대화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억양과 목소리, 대화 내용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 시에는 후광효과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즉 지원자의 답변 자체에 더 귀 기울이면서도 사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기에 비대면 면접은 블라인드 채용의 형식적 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대면 면접만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

비대면 면접을 통해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친숙함까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을 채용하는 데 인간적 교류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대면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우리 회사의 포지션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이며, ‘지원자의 성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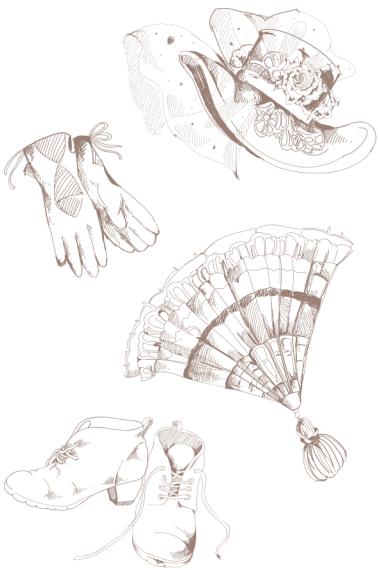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적·공간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비대면 면접의 도입이 점차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비대면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1차면접을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고, 2차면접을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는 등 채용과정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코로나19로 인한 울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라!’
공단 총무부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울산 중구청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테마카페를 방문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레트로(Retro) 의상을 입고, 의기투합한 이들!
총무부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모두 웃음으로 하나되었던 현장을 전한다!

공단 살림꾼들의 유쾌한 도전, 13인 13색을 만나다!

공단 총무부
울산 의상대여 테마카페 <러브1911> 방문



윗 줄(왼쪽부터) 윤지민 인턴, 신환윤 차장, 허용 과장, 유자영 대리, 정신혁 과장, 김성원 과장, 이승원 과장, 박준용 과장
아랫줄(왼쪽부터) 김영동 국장, 강민정 과장, 하필규 부부장, 정아영 차장, 변은혜 대리

소소하게 안전하게!

전 직급 알록달록한 의상체험에 푹 빠진 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긴장감에 더해 하늘마저 흐렸던 지난 17일 오후, 가라앉은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 시킬 이들이 나타났다! 바로 ‘소안행(소규모 안전 행사)’을 기획한 공단 총무부 직원들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러브 1911> 사전 방문까지 마쳤다는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의상 체험에 도전했다. 의상실에 마련된 각종 셔츠와 바지, 액세서리 등 40여 벌의 다양한 의상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르는 것이 첫 번째 미션! 신환윤 차장과 정아영 차장을 필두로 강민정 과장, 김성원 과장, 변은혜 대리, 유자영 대리, 윤지민 인턴이 하나님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하고, 이어서 김영동 총무국장, 하필규 부장, 박준용 과장, 정신혁 과장 등이 머쓱한 웃음과 함께 의상실로 향했다.

잠시 후 몰라보게 달라진 김영동 총무국장의 뒤태에 부서원 모두가 웃음이 터진 가운데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승원 과장은 울산지역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블루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오늘 총무부가 방문한 <러브 1911> 카페는 울산 중구청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카페인데요.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침체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자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공단 소.안.행(소규모 안전 행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체육행사 대신 기관별 사정에 맞는 자체 방역활동 실시와 병행하여 부서별 소규모 안전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진행 시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을 권장하여, 어려움을 겪는 각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사와 사보 팀플전 촬영까지 겹하게 되어 팀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는 듯했다. 사뭇 달라진 서로의 모습에 찬사와 야유를 보내기를 한참. 서무팀, 회계팀별 촬영까지 무사히 마쳐야 하는 두 번째 미션에 허용 과장은 안경을 벗는가 하면, 이승원 과장은 멀찍이 떨어져 원근감을 강조하고자 노력했다. 팀원들의 색다른 모습에 신환윤 차장은 기분 좋은 한마디를 보탰다.

“코로나19 이후 외부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오랜 만에 소소하게나마 직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좋죠.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총무부 직원들부터 자주 웃고 행복해져야죠. 오늘 그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인 것 같아요.”

총무부다운 에너지와 오랜만에 열린 행사로 인한 설렘의 겹쳐 카페는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공단의 살림꾼

이어서 총무부를 지탱하는 서무팀과 회계팀 구도의 간단한 게임도 이어졌다. 오늘의 게임은 ‘젠파’. 공단의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도맡아 세심히 살피는 이들과 나무 조각조각이 모여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는 젠가는 똑 닮은 구석이 있어 더 흥미로운 순간! 게임에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걱정거리를 잊고 웃었을 것이기에, 김영동 총무국장은 어린 시절 동화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라며 참신한 기획에 힘을 보탰다.

“우리 총무부에서 이런 기획을 하다니 참 신선하고 창의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부뿐만 아니라 ‘소안행’을 통해서 약 780여 명의 직원이 울산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행사를 진행할 텐데, 이 공간을 타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그 어떤 부서보다 화기애애한 웃음과 화려한 의상으로 미션을 수행한 총무부. 한편, 하필규 부장은 색 다른 도전이었는데 직원들 호응이 좋아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총무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총무부 직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에 공단 직원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총무부가 공단 살림을 하는 역할이니 평소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남은 일을 많이 도맡아서 합니다. 또, 총무부의 고객은 공단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반대로 잘 아는 얼굴이기에 고충도 그만큼 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또 공단 직원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총무부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의 살림꾼. 공단이 고객 만족을 위해 발로 뛰듯 이 총무부 또한 고객인 공단 직원들을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달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의 있게 움직이는 이들을 지켜봐달라는 하필규 부장. 흐린 하늘 이 총무부의 에너지로 밝게 가득 찬 오늘처럼, 앞으로도 긍정의 에너지로 공단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울산 의상대여 테마카페 <러브1911>

1층에는 고복수음악관, 2층에는 총 40여 벌의 테마의상을 갖춘 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카페 내외부는 물론 예스러운 재즈 골목길과 더불어 한옥이 어우러진 동헌에서 레트로 의상을 입고 찰칵찰칵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주소 울산 중구 중앙1길 9, 고복수음악관 2층

영업 평일 12: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 주말 11:00~21:00(코로나19로 인한 임시 운영시간)

가격 1시간 대여 시 1인 10,000원(의상은 1인 2벌, 소품은 1인 2개 한정)



MINI INTERVIEW

총무부 하필규 부장 인터뷰

공단 총무부를 소개합니다!

Q —— 공단 총무부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총무부는 공단 임직원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총 24명이 근무하며 공단의 복무·급여·복리후생·사회공헌 활동 등 직원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한 부서입니다.

Q —— 본부의 살림을 도맡는 부서로, 가장 보람된 순간과 어려운 순간을 꼽자면 언제일까요?

A —— 가장 보람된 순간과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항상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2019년 노사한마음 HRDK 족구대회를 통해 천여 명 이상의 직원이 모이는 큰 체육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해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Q —— 타 부서는 주로 고객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총무부는 공단 직원들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소통력을 높이는 총무부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총무부는 행복한 일터에서 행복한 직원이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만족도 조사, 노사협의회, CEO 관리 카드 등을 통해 고객(직원)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월간 총무부’ 운영을 통해 타 기관 공모전에 도전하여, 비예산으로 문화·건강·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재택근무 선제적 도입, 유연 근무 활성화와 창립기념품·출산 축하 용품을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 등 우리 고객(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올해 하반기 총무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모두가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Next20추진단’을 결성하여 지난 13년간 사용해온 공단 경영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편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 애들과 요즘 어른들 사 — 이



공단 독서모임 **독서환장무리** 가 바라본
우리 사회가 마주한 세대차이

혁신기획부 장준호

예산부 곽상현

잘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갈등은 시작된다.『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은 세대 갈등의 원인을 세대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에서 찾으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세대별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X세대인 나는 ‘불혹’이 아니라 ‘영포티’라고 믿으며, 90년대생인 밀레니얼 세대 직원과 함께 일하고,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 아이를 키우고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고, 그에 따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지금의 20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20대를 떠올려 보고, 베이비붐 세대도 자신의 20대를 떠올려본다면 세대 간 차이는 줄어들 것 같다. 직장 동료 간 팀워크, 가족 간 유대, 나아가서는 고객인 국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다.

요즘 애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미래를 주도할 세력이자 현재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가는 세대다. 그들을 모르고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요즘 어른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무조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전히 요즘 어른들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력은 요즘 애들을 능가한다. 요즘 어른들에게도 아직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다.



고객지원부 김창영

과거와 달리 청년과 중년, 노년의 경계가
다소 늦춰진 탓에 과거 노년의 나이는
이제 중년에 가깝다고 한다. 예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노년이 아닌 중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한 사회의 변화는
나에게 낯설기도 하지만 무척 반가운
말이다. 요즘 애들도 요즘 어른도 아닌
청년도 중년도 아닌 어중간한 나이의 나,
그러나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나이인
나는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언제나 촉을
곤두세우며 살아가야겠다. 사회가 규정짓는
구성원의 모습보다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시대, 나만의 삶을 위해서!

정보화사업1부 마효탁

책은 왜 세대 구분이 생겼는지 갈등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저자의 통찰로 분석하며, 세대별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지키려는 자와 바꿔려는 자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 왔다. 결국, 세대차이와
갈등은 필수적이기에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서로의 다른을 인정하고 시작한다면, 관계에
대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김용섭 저, 21세기북스

한국사회가 요즘 애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활용가치와 영향력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애들만큼이나 요즘 어른들도 중요하고, 그들도 역시 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된다.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은 질문들로 구성된 책이다. 1부 「요즘 애들」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주체로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한 36가지 질문, 2부 「요즘 어른들」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진화하는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27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세대차이로 고민하고 있다면,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에 주목하라. 요즘 애들과 요즘 어른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해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글로벌경력지원단 공영광

공단 신규직원들의 연령대는 90년대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나의 나이와 직급, 조직에서 기대하는 역할 등도 점점 변하고 있다. 조직에서 애들 취급을 받기에도, 완전한 꾼대 노릇을 하기에도 어중간한 상황에서『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은 꽤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나와 같은 중간세대 또는 세대차이를 갈등 양상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독자라면 특정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꼰대’ 소리는 듣지 않는 참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보실 조 준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은 세대 간 갈등은 세대로 나뉘는 특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가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의 특성 또한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독서모임에서는 심리학 등 인간에 대한 탐구를 살펴보면 좋겠다.

관계의 청렴이 중요한 시대

양세영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세한대 교수)



최근 반부패 핵심과제로

갑질, 채용 비리,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대두된 2~3년 전부터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채용 비리 등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비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직 구성원간 또는 조직 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배려가 부족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인 책임성이 높은 조직이므로 이런 문제는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채용 비리, 성희롱 등을 대표적인 적폐로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갑질의 경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 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2차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피하여 갑질이 고착화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의 개정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운영, 갑질 옴부즈만 위촉과 모니터링,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며 개별 공공기관도 이러한 정부 시책을 기준으로 갑질 근절 대책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적극적인 청렴 개념 적용 필요

그동안 우리는 청렴의 사전적인 의미에 익숙해져 있다. 청렴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로 보면 청렴의 본질적인 특성은 알 수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품고 있다. 즉, 개인의 도덕적인 수양의 의미가 강하며, 구체화하더라도 금품수수, 향응,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하지 말고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탐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늘날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의 청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부패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넘어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뢰와 투명, 공정성을 갖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관계의 비리 역시 청렴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중시해야 할 필요가 크다. 시간이 갈수록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문화 개혁이 근본적인 청렴도 제고 방향
아울러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근 제시된 정부의 여러 대책은 단기적인 경계효과와 함께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갑질, 성희롱, 폭언, 부당한 지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은 아니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적인 민감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 특성과 그것이 반영된 조직문화에서 유래된 측면이 크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권위주의, 채용 비리는 연고주의와 성과 만능주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수평적인 소통 부족과 같은 조직문화와 관련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청렴의 문제는 적합한 제도 장치와 함께 조직문화의 혁신 노력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조직문화의 뒷받침은 절실하다.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공통집합으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핵심가치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청렴한 조직문화(ethical culture)는 조직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청렴 가치를 통해 구성원들의 청렴 실천 행동을 유도하고 비윤리 행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청렴한 조직문화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청렴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청렴 가치로는 정직과 절제 등이 강조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기대 수준의 제고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기본 가치 외에 공정성, 존중, 배려 등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의 가치 공유와 내면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대부분 청렴과 관련된 핵심가치를 표방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가치가 공유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청렴 가치에 대한 접근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문화는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과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속해서 핵심가치와 청렴 공동체로서의 비전이 제시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특히 조직 구성원간 소통은 조직문화 형성의 관건이다. 최근 우리나라 공기업 직원의 40% 이상이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더 소통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HRD NEWS



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

우수 참여후기 사례집으로 선보여

공단은 6월 8일(월)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후기 공모전 수상작을 사례집으로 엮어 홈페이지 (myjobacademy.kr)를 통해 선보였다. 이번 사례집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 준비 과정 및 취업 성공 스토리를 공모해 우수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2020년도 국가자격 취득 수기공모전



I 공모 기간 및 자격

- 공모기간 : 2020. 7. 6.(월)
~ 7. 27.(월)
- 참가자격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취득자 (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I 공모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예시)
국가기술자격 취득 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으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사례
국가전문자격 취득 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으로 직장 내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 기타 널리 알리고 싶은 자격취득 사연

I 출품 방법

- 온라인제출(우편접수 불가) :

E-mail(contest@hrdkorea.or.kr)
- 시상 계획

시상 인원(상금)			
대상	금상	은상	동상
1명 (100만 원)	2명 (각 50만 원)	3명 (각 30만 원)	6명 (각 15만 원)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대사 모여

고용허가제 발전방향 논의

공단은 6월 17~18일, 통영 스텐퍼드 호텔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대사 및 노무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EPS Conference in Tongyeong」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공단, 송출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및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공단은 경상남도,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민관친선 외교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한이탈주민, 격리기간에 국가기술자격 응시 가능

공단은 6월 24일, 하나원에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격리기간 동안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내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CBT)을 보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하게 될 종목은 상시검정인 조리, 제과·제빵, 미용사 등 '국민생활 밀접형 종목'이다. 공단은 '정례 자격설명회'를 개최해 자격증 취득 전망 등을 공유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 < 특별조치 주요내용 >	
훈련 참여대상	입직 2년 이내, 상시근로자 40% 이내로 확대
훈련지원금 지원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으로 확대
훈련과정 개발지원	2개 직무 추가 지원
타 지원금 증복수령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증복수령 가능

일학습병행, 특별조치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지원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일학습병행 제도의 규제 완화, 비용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위기 극복 특별조치를 6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특별조치 주요 내용은 훈련참여대상 확대, 훈련지원금 추가지원, 훈련과정 개발직무 추가 지원, 타 사업 지원금과 증복 지원 확대 등이다.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는 공단 본부 일학습지원국 또는 지역본부·지사 일학습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제시하면

수험자가 이용한 서비스 요금의 20% 할인 혜택 제공

공단은 7월 1일부터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1,000여 개의 협력 네일숍(첨부 스티커가 붙은)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수험표를 제시하면 본인의 네일케어, 젤네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은 시범적으로 6개월간(12월 31일까지)이며,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침체한 대표적인 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분야인 네일미용 속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Letter box

김현지

생생 꿈지도에 실린 생생한 경험담을 보니 자격증 취득의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에 도전하는 이들의 수기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경숙

끝없는 근면성실함과 인내를 바탕으로 우수숙련기술자가 되신 봉원호님 기사가 감동적이에요. 늘 불평불만을 일삼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향

'울산페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소규모 소상공인분들을 돋는 숨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유난히 가슴 뛰듯함을 느꼈습니다.

지현민

공단의 외교부 협력을 통한 '아포스티유' 공증 서비스 제공 기사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온라인 공증 서비스 제공으로 세계를 누비는 한국기술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모한나

공단 울산지사 탁구공 이어달리기 도전 기사가 인상 깊네요. 단순해 보여도 팀워크가 무척 중요한 게임인데, 다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함께 나아가리라 다짐해요!

도영아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필요한 광고만 집행하는 착한 매체사 <엘리미디어>를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심을 간직하며 제작사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HRDKorea

vol. 289



QR코드를 인식해
이번호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당첨자

김현지 43** 김경숙 32**
조향 38** 지현민 60**
모한나 03** 도영아 79**

HRDKorea 상반기 설문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HRDKorea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독자엽서 뒷면 문항에 대한 답변을

QR코드나 독자엽서

(7월 17일 도착분에 한함) 혹은

이메일 (kyj626200@hrdkorea.
or.kr/ 주소, 연락처 기재,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보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해주신 10분을 선정,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고 상금
5,000만원!

제 1회 도전. 한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스마트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인공도 되고,
풍성한 상금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모기간

2020.06.15(월) ~ 09.15(화)

※ 사전등록자 대상 과제설명회 개최(7월)

• 공모자격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기업, 단체)

• 공모과제 및 과제별 시상규모 (총 상금 25,000만원)

과제번호	과제 제목	과제별 상금
1	반려동물 유기 예방	3,000만원
2	해양 쓰레기 탐지 및 제거	5,000만원
3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	1,000만원
4	보이스피싱 예방	5,000만원
5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방지	1,000만원
6	소각산불 예방	3,000만원
7	1인 여성가구 안전 확보	3,000만원
8	실외 금연·흡연 구역 구분	1,000만원
9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3,000만원

※과제별로 최우수상 1개를 선정하여 포상금(과제별 상금규모 상이)과 정부표창을 수여하되,

최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과제별 포상금 한도 내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상금 차등 지급

※과제 및 시상규모,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1. **광화문1번가** 누리집 (gwanghwamoon1st.go.kr)내 '도전. 한국'메뉴의 '해결방안 공모' 페이지 접속
2. 과제별 상세 페이지에서 '참가하기'를 클릭하여, 붙임 제안양식 작성 후 직접 제출

• 문의

1. 공모 절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korea@nia.or.kr, 02-853-4323, 044-205-2220, 2213)

2. 과제별 구체적인 정책 및 기술동향 등 관련 사항 : 과제별 소관기관 (붙임 공고문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소창 또는 검색창에 '도전. 한국'을 입력하세요.



행정안전부

남다른 능력 to 색다른 내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절취선
①

보내는 사람

이 름 _____

주 소 _____

전 화 _____

--	--	--	--	--

우 편 앱 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업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절취선
②**HRDKorea**

울산광역시 종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	---	---	---	---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ar**07**

2020년 7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회 주택 관리사 1차 추가 원서접수(7.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제122회 필기시험(7.4) ▪ 기능장 제68회 필기시험(7.4)
5	6	7	8	9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회 청소년지도사 1차시험 원서접수 (7.6~7.10) ▪ 제8회 행정사 2차시험 원서접수(7.6~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회 물류관리사 추가원서접수 (7.9~7.10) ▪ 제6회 수산물품질 관리사 1차 추가원서 접수(7.9~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회 주택관리사 1차 시험(7.11) 	
12	13	14	15	16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 2차시험 원서접수(7.13~7.17) ▪ 제35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차시험 원서접수(7.13~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소방안전교육사 1, 2차 추가원서접수 (7.16~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제121회 면접시험(7.18~7.28) ▪ 제24회 물류관리사 시험(7.18) ▪ 제6회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 (7.18)
19	20	21	22	23	2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장 제68회 실기시험 원서접수(7.20~7.23)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 원서접수(7.20~7.23) ▪ 제20회 관광통역안내사 1, 2차 원서접수 (7.20~7.24) ▪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원서접수(7.20~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소방안전교육사 1, 2차 시험 (7.25) ▪ 기사 제2회 실기시험(7.25~8.9) ▪ 제17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7.25) ▪ 제10회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7.25)
26	27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원서접수(7.28~7.31)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질취선
①

성별

 남성 여성

1. HRDKorea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사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은 이해하기 쉽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사보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사보에서 가장 즐겨보는 코너는?

9. 7월호를 읽고 느낀 점과 일자리 관련 슬로건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 사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사보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일을 잘 알게 됐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사보의 글씨 크기는 적당하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현재 사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질취선
②